

민수기 2

III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22-36 장)

장과 주제	사실(Fact)	의미(Meaning)	적용(Application)
22-25 장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복술가 발람을 찾아가 돈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한다.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진리를 알고도 순간 이익에 집착하게 된다.	나는 발락과 발람처럼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과 서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고, 4 번이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민 19:23).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가?
	발람의 계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고 이만사천명이 염병으로 죽었다 (신 25:1; 계 2:14).	음행과 우상숭배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망치는 첩경이다.	죄악의 자리에 초청을 받을 때 시편 1 편을 묵상해 보자.
	비느하스가 행음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을 죽이자 염병이 그쳤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26 장 두 번째 인구조사	1 차는 시내산에서 603,550 명이었고, 2 차는 모압 평지에서 601,730 명 이었다.	광야 40 년을 방황했어도 1 차와 2 차 인구조사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다.	광야에서 출산과 양육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은혜가 계속되었음을 나누어 보자.
	다른 지파의 수는 비슷하나 음행의 장본인인 시므리가 속한 시므온 지파는 69%가 감소했다.	나의 불순종은 나의 후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느하스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코 후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시므리같은 자가 되지 말자.

F.M.A 성경공부

<p>33-36 장 가나안 땅의 분배</p>	<p>정복할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찌르는 것이 된다.</p>	<p>가나안 정복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다.</p>	<p>세상과의 관계에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but into the world'의 의미를 새겨보자.</p>
	<p>도피성을 6 개 두어서 억울한 죄인이 피하게 해 주었다.</p>	<p>도피성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었다. 죄인들의 영원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p>	<p>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소망이며 큰 안위를 주시는 피난처임을 함께 나누어 보자(히 6:18).</p>